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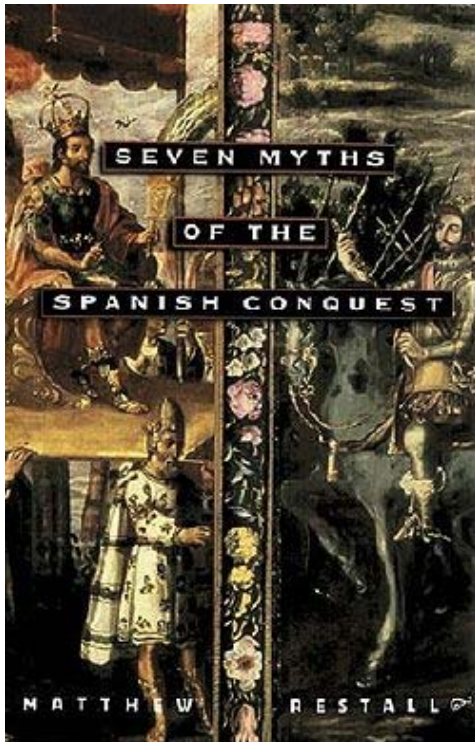
■ 역사, 그 못 믿을 진실

－ 『스페인 정복의 일곱 가지 신화』

우 석 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민족역사학자 매튜 리스톨 (Matthew Restall, 1964~)의 『스페인 정복의 일곱 가지 신화』 (*Seven Myths of the Spanish Conques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3)는 서구가 비서구에 대해 남긴 기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 주는 책으로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과 관련된 일곱 가지 오류를 고발하고 있다. 저자가 추적한 일곱 가지 중요한 오류는 비범한 인간들의 신화, 왕의 군대 신화, 백인 정복자 신화, 완료 신화, 소통과 불통의 신화, 원주민의 비참함 신화, 우월성의 신화다.

‘비범한 인간들의 신화’를 다루는 1장에서는 특출한 재능을 지닌 소수의 스페인 정복자가 아메리카 정복이라는 위업을 이룩했다는 역사 서술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콜럼버스, 코르테스, 피사로가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었다든가, 아메리카 정복에서 비범한 재능을 발휘한 특출한 인물이라든가 하는 평가



『스페인 정복의 일곱가지 신화』
(2003)

가 날조 혹은 과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콜럼버스는 사실 유럽이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팽창되는 과정에 활약한 수많은 인물 중 하나일 뿐이며, 더욱이 아시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처럼 결코 주역이라고 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한 아메리카 ‘발견’ 300주년 행사와 400주년 행사를 통해 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르테스의 경우에는 그의 『보고서 서간문』(Cartas de relación)이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더 많은 권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공을

한껏 과장해서 쓴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복 시대 초기에 정복자가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훗날 연대기 작가와 역사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언급하는 사료가 되면서 코르테스의 공이 과장되었다고 한다.

‘왕의 군대 신화’를 다루는 2장에서는 당시 아메리카 정복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페인 국왕이 파견한 정규군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인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스페인이 국가 차원에서 아메리카 정복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 정복사업을 지휘한 자들은 정복 권리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분을 바치겠다는 계약을 국왕과 맺고 원정대를 모집했을 뿐이다. 원정대에 참여한 이들도 원정대장과 계약을 맺었으며, 자비를 들여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말을 가지고 정복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배당금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한다. 원정

대 지휘자들은 일종의 무장 기업가 혹은 벤처사업가였던 셈이며, 원정대는 초보적인 합작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대원들은 동업자이자 직원이었던 셈이다. 물론 군인들도 원정대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극히 소수였다. 가령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의 정복자들 중에서 군인은 2~3%에 불과했다고 한다.

‘백인 정복자 신화’를 다루는 3장에서는 스페인인만의 힘으로 아메리카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통치 세력과 반목하는 원주민 집단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아프리카 흑인까지 정복자 진영에서 함께 싸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원주민들이 남긴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는 『멕시코 노래』(Cantares mexicanos) 같은 텍스트에서는 소위 ‘멕시코 정복’이 토착민들 간의 내전이었으며, 메시카 인이나 틀락스칼라 인 등이 전쟁의 주체로 묘사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정복 과정에서 스페인인 편에 섰던 이들을 현지 조력자로 서술하는 기록들은 스페인의 시각만 반영된 것인 셈이다. 저자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참여도 주장한다. 1537년 이미 멕시코시티에만 1만 명의 흑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푸에블라의 흑인노예였던 후안 발리엔테처럼 전리품을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주인을 설득해 1533년 정복사업에 뛰어들어, 결국 1540년 칠레 정복에서의 공으로 엔코멘데로까지 된 사례를 거론한다.

4장에서 말하는 ‘완료 신화’란 스페인의 정복사업이 쉽게 완료되었다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다. ‘팍스 콜로니얼’(pax colonial)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핵심 지역 외에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고, 심지어 20세기까지 지배가 계속된 지역도 있었다. 또한 백인 지배 지역에서도 국지적 저항은 일상적이었다시피 했다. 리스틀은 ‘영혼의 정복’이나 원주민들의 문화적 동화 등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본다. ‘팍스 콜로니얼’은 정복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



디에고 리베라 <테노치티틀란의 정복>

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국왕과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 투옥,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정복자들로서는 정복사업 성공을 선언하고, 서류상으로라도 도시를 창건하고 정착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부를 과장하고, 원주민 지배가 순조로운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잇단 성공 선언이 ‘팍스 콜로니얼’이라는 착시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5장은 소통과 불통의 신화 두 가지를 다 비판한다. 정복자들과 원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는 『아메리카 정복 - 타자의 문제』(La conquista de América: el problema del otro)의 저자 토도로프,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였다. 이들은 소통의 원활함 유무가 정복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

다고 주장하였다. 토도로프나 르 클레지오는 코르테스의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스테카 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이어졌고, 이것이 멕시코 정복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목테수마는 의사소통에 실패하여 스페인인들의 침입을 케찰코아틀의 귀환, 즉 신의 귀환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아스테카의 멸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다. 다이아몬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피사로의 잉카 정복 성공이 정복자들의 읽고 쓰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 능력 혹은 읽고 쓰는 능력에서 스페인인들이 우월했다는 주장은 서구우월주의의 일환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이를 정복의 성패와 연결 짓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6장에서는 ‘정복의 트라우마’로 원주민사회가 완전히 활력을 잃으면서 지배자들에게 철저히 억눌려 지내게 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이다. 저자는 정복자의 신격화가 정복의 트라우마라는 관점을 낳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가령 원주민들이 코르테스를 케찰코아틀로 여겼다는 기록은 정복자들의 일방적인 기록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아군(Bernardino Sahagún)의 피렌체 코덱스처럼 원주민의 시각이 담긴 텍스트도 프란체스코 교단의 정복자 신격화 작업에 일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코르테스의 지원으로 멕시코 지역 포교 사업을 선점한 프란체스코 교단이 포교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그의 신격화를 조장했는데, 피렌체 코덱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복자의 신격화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에게 단죄되었다는 혹은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원주민들에게 안겨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정복의 트라우마가 원주민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켰다거나 혹은 정신적 공황에 빠져들게 했다는 관점에 반론을 제기한

다. 가령 1539년 틀락스칼라의 성체 축일이 패배의 아픔보다 공동체의 생존, 단결, 활력 등을 과시하는 장이었다거나, 원주민들에게는 카빌도(cabildo)가 정복자들의 통치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자치조직으로 여겨졌다거나, 원주민 문화가 두 세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사례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7장은 ‘스페인인이 우월했기 때문에 원주민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역사 해석이 어떻게 진실처럼 굳어졌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정복을 신의 섭리로 보는 종교적 시각, 문자나 기호 해독 능력의 우월함, 문명/야만의 이분법, 무기의 우수함 등 스페인인의 기술적·문명적 이종의 우월함이 정복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사료에서 만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스페인 정복의 일곱 가지 신화』는 이처럼 수많은 역사 서술과 ‘상식’을 일관되게 뒤집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자가 제기한 반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그랬듯이 철저히 의심하는 태도로 과거의 기록에 접근하지 않으면 ‘신화’에 현혹되어 역사적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리라는 점을 깨닫는 일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를 호령한 열강들의 치밀한 지적인 공모, 심지어 식민 시대의 원주민이나 현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까지 오염시킨 그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잘못된 신화가 공신력 있는 역사 서술로, 그 역사 서술이 일반상식으로 탈바꿈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점을 이 책은 역설하고 있다.□